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사랑은 포용하는 힘이며, 사랑에 대한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삶과 개인의 역사, 사회와 세계,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전체 중 일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와 연결된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이는 하나의 운명과 역사, 그리고 현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예전에도 여러 번 떠올렸던 한 가지 생각이 다시 마음에 스쳤습니다. 마치 저와 대부분 사람이 눈에 어떤 ‘필터’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판독기이자 보이지 않는 안경, 기억, 혹은 마음속 기록 보관소와도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와 전통, 지역과 언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학습의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각자의 고유성과 개별성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한 것과 병든 것, 똑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젊음과 늙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친구와 적, 원주민과 이방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때로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부모와 조상, 문화와 사회에 대한 충성심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포용과 참여, 일치와 보편성, 정체성보다는 양극성과 이분법, 배제와 구별 속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를 “만남의 문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

의 내면, 그리고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곧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들과의 만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세계, 우주와의 만남을 통해 다리를 놓고 역동적인 관계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대에는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물려받은 사고방식의 “집”을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문화를 받아들여 만남과 일치를 창조하고 촉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첫째, 우리는 조상들에 대한 존경과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준 관계 방식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올 수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날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곧 예수님의 시각으로 더 깊이 나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일치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라는 끊임없는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훨씬 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내면의 성찰과 자기반성, 진실한 기도,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은 예언적이며 새롭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응답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26)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4월 18일(토)~19일(일) 문래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은 단순히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목이 바로 교정사목입니다.”라며 특히 ‘청소년 사목’에 대해 더욱 관심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관심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사례 등,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 가족과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문래동성당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과 신자 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각 교정시설 대표 봉사자 야유회



4월 29일(수)~5월 1일(금) 전라도 광주에서 각 교정시설 대표 봉사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미리암 수녀 소속,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에서 머물며, 미사도 봉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정시설 봉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 주는 대표 봉사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야외 미사



5월 11일(월) 지금은 평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밀물 때 배가 드나들었던 곳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입국하는 통로가 되어 준 충남 당진에 있는 신리성지를 둘러보고, 충청도 최초로 설립된 충남 아산에 있는 공세리성당에서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야외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승민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5월은 성모성월로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 서 있기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시며 그냥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랑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라며, “교정사목 가족들은 수용자들을 찾아가고 그 가족들 곁에 머물고, 출소자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힘을 보태주실 때 그 품이 바로 성모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정사목의 봉사와 후원이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기에, 이 활동 그 자체로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활동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덕질’에서 ‘봉사자’가 되기까지

정혜경 베로니카 / 서울구치소 여사 봉사자

눈이 시리도록 청명한 5월의 하늘입니다. 담장 안에 있는 이들도 마음만큼은 담장너머로 훨훨 날아 초록 초록한 산과 들을 다니며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어 내고 꽃피운 새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교정사목 봉사자가 된 지 이제 6개월, 나이로 말하자면 전국에서 TOP3까지는 아니더라도 TOP10안에는 거뜬히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어느 봉사 경험도 지나지 못한 저는 영성 순으로는 맨 끝줄에 아주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지난 월례 미사에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꾸준히 봉사해 오신 분들을 뵈고 놀라움과 존경심이 우러나왔으며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창 트로트 열풍이 불었을 때 전 그 열기에 휩쓸려 어느 트로트 가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풍성한 테너의 음성에 마음을 뺏겨 생애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덕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팬이 되고 그는 제 가수가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가수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용자들을 위하여 기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수용자들을 위해 묵주기도와 미사 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새해 연두교서를 발표하시면서 신앙은 기도와 미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시며 봉사활동을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막막해하고 있을 때 불현듯 교정사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즉시 인터넷으로 교정사목 봉사자 신청을 했고 이듬해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피해자들의 아픔이 떠올라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으나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차츰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3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받았고 저는 그중 한 자매의 대모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삶이 비록 녹록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정사목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육 동기들 그리고 초짜 중의 초짜를 따듯하게 맞아주는 서구여 대표님과 단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세상 부질없는 일에 묻혀 있던 저를 교정사목 봉사자로 만들어 주신 오묘한 성령의 이끄심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덕분에 나도 되어간다.

- 만델라 교정 현장에서 함께 걸으며 배운 동반자의 길



김현주 바울라 / 더품다교육공동체

3년 전 처음 만델라(소년학교) 수업을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 두려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 해줘야 할까?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의 이런 걱정과는 무색하게 첫 만남의 아이들은 반갑게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며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해 주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서있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은 만델라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나 ‘까’로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순서도 모르던 성호경을 열심히 따라 하고, 난생처음 해보는 기도일 텐데도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과 신부님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아이들, 목주를 보고는 정말 이쁘다면서 이거 목걸이냐며 머리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 들어간다면서 서로 크게 웃어버리는 아이들, 성경책 구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새롭고 신선한 접근방법 및 표현들은 주일학교에 나오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순수해 보였습니다.

처음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 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자신을 돌아보도록, 삶의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 또한 변화되고 그들 안에서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이요.

만델라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변화만을 기대하며 조금해 하지는 않는가?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국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 안에 숨겨 두었던 편견과 딱딱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길은 때론 지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는 더디고 현실은 녹록지 않으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당장 결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생겨납니다.

만델라 청소년들의 짧은 찰나의 미소,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 작은 감사 표현, 혹은 끝나고 나가며 건네는 눈인사는 걸음으로는 거칠고 무심해 보였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삶을 직면하는 용기를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청소년 교육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이전에 그들의 삶 곁에 함께 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동반자’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도, 뒤에서 밀어붙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걸으며 넘어질 때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출소하는 만델라 청소년에게 받은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상 웃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게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나가서도 그 기운 잊지 않고 이어 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 이상의 과분한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의 존중, 포기하지 않는 시선, 함께 있어 주는 시간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남아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실 가장 많이 변화되는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서로를 통해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델라 청소년들이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이것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누구도 혼자 견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하며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기다림 속에서 더 넓은 믿음을 배우며 동반의 길 안에서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동행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들의 존재가 또 당신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나도 되어간다.”

그리고 그 되어감의 여정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

강수연 /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강사

안녕하세요. 이번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주관하는 교정시설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소 상징 도구를 활용한 자기 이해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분들과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교정시설이라는 공간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참여자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만난 수용자분들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성향과 감정, 삶의 방향을 상징 카드와 도구를 통해 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자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이어진 개별 상담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출소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면 어떡하죠?”, “기술을 배우면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저를 다시 믿어줄까요?”

그 질문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교정시설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모두 품고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실질적으로 답을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

원회인 것 같습니다.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직업훈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그리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재기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봐 주는 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육의 핵심인 인간 존엄과 회복의 가치가 이 현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단정 짓고 주저앉으려 할 때, 그 옆에서 조용히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활동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강사와 상담사로서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일을 해왔지만, 기쁨과희망은행이 만들어 가는 이 실천의 현장에 작은 역할로나마 동참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정시설이라는 낯선 공간이 오히려 제 상담의 의미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삶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자분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고, 저 역시 이 경험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건강한 선택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정사목국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 에요. 신부님을 만났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벌써 16살이
 되었고. 시험도 보고 주말에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재밌는 날이 더욱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이모들과 신부님,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도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부님 덕분에 여기서 너무나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부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릴게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2026년 5월 5일

- ■■■ 윤림 -

PS 아버지와 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간식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문화상품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캘리그래피에
 작가는 저 ■■■ 입니다.



교정사목국 수녀님께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 에요. 수녀님들
 만나면서 수녀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와
 격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요!! 수녀님께서도
 항상 저랑 ■■■ 를 도와주셨는데, 수녀님의
 따뜻한 말과 손길 덕분에 너무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신부님과 수녀님 덕에
 여기서도 편안하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항상
 수녀님과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저에게 도움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수녀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수녀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2026년 5월 5일

- ■■■ 윤림 -

PS 어머니와 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간식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문화 상품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캘리그래피의 작가는
 저 ■■■ 입니다.

※ 출소자 가족 지원을 받으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가 보내온 감사 편지입니다.
 자매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7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6월 1일(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6월 8일(월)~12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여주교도소
- 6월 9일(화)~11일(목), 15일(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기 인성교육
- 6월 13일(토)~14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불광동성당
- 6월 15일(월) 해밀 가족 야유회 / 강원도 춘천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04/16~26/05/15)

2026년 4월~5월에는 강수연, 김경애 아네스, 장단아, 정희상 미카엘, 문래동성당 고금희 소화데레사 외 58명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강매리, 김영환, 김임구 유스티노, 유성현 로사, 문래동성당 YISEULKIDAN-IEL 외 70명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